홍길동 만화영화·드라마 만든다

장성군 '3D 애니메이션' 사업 30억 투자

'환타지 홍길동' 10월께 SBS 방영 예정

장성군이 홍길동을 소재로 한 극장용 만화영화와 TV 시리즈 제작에 나선다.

장성군은 최근 '홍길동 3D 애니메이션' 제작계획이 농림부로부터 2007년 신활력사업으로 승인 받았다고 밝혔다.

'홍길동 극장용 3D(입체) 애니메이션'사업에는 총 30억(국비 50%, 민자 50%)원이 투자되며 해외시장을 겨냥해 기획단계서부터 일본, 유럽 등 글로벌 자본도 유치할 계획이다.

장성군은 오는 5월 영화제작에 대한 용역안을 공고하고 사업자를 모집한뒤, 내년 7월 개봉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영화제작에는 과거 신동우 화백의 홍길동 시리즈 영화를 제작했던 신동헌 감독이 제작위원으로 참여한다.

장성군은 또 TV용 만화영화인 '환타지 홍길동'(가제)을 제작해 올 10월께 SBS를 통해 방영할 예정이다.

장성군이 개발한 홍길동 캐릭터.

26부작으로 제작될 '환타지 홍길동'은 지역 CT(Culture Technology) 업체인 레인버스 스튜디오(주)와 디 아이 존(DI ZONE)을 비롯 4개 업체가 맡아 제작중이며, 일본 등지로의 수출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홍길동 만화영화와 TV 시리즈 제작에 따른 노하우 활용, 캐릭터 판매 등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장성군은 성공적인 콘텐츠 사업의 추진을 위해 지역에 기반을 둔 문화콘텐츠 업체를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할 계획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홍길동을 군 고유 브랜드로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 신활력사업으로 홍길동 콘텐츠 사업을 진행중에 있다"며 "홍길동 극장용 3D애니메이션으로 최소 관객 100만 동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성=고재빈기자 jbgo@

보성 대원사 벚꽃세상

천년 고찰인 보성 대원사 도로변 벚꽃이 만개했다. 길이가 5㎞에 달하는 대원사 왕벚나무터널은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될 정도로 환상적인 경관을 연출하고 있다.

/보성=안구일기자 giahn@

영암 구림初等 개교 100주년 행사

동문 등 1천여명 참석 '한마당 큰잔치' … 기념탑 제막

영암구림초등학교(교장 김영칠) 개교 100주년 기념행사가 지난 1일 동문과 각급 기관단체장, 주민 등 1천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사진〉

이날 행사는 기념식과 기념탑 제막, 한마당 큰 잔치 순으로 이어졌다.

특히 월출산 이미지를 담은 높이 6m의 '100주년 기념탑'은 조수웅(전남문협회장·39회)회장이 글을 쓰고 최규철 광주예총회장(전남대 교수·49회)이 조각한 것으로 현재와 미래를 위해 화합하자는 의미가 담겨있다.

최복(67)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장은 "동문 모두의 관심과 적극적인 후원으로 100주년 개교 기념행사를 갖게 됐다"며 "이번 행사가 군서 면민의 화합 한마당으로 발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07년 개교한 구림초등학교는 지금까지 6천 4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영암=김한남기자 hnkim@

쇼핑할때 영어로 말하세요

농협목포유통센터 '영어체험 마케팅' 실시

농협목포유통센터가 오는 7일부터 하나로클럽 매장에서 영어로 쇼핑할 수 있는 '영어체험 마케팅'을 실시한다.

매주 토·일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하나로클럽 농산물 매장에서는 영어를 구사하는 외국인이 희망고객을 대상으로 직접 판매에 나선다.

이에 따라 외국인과 영어대화에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평가 받고 있다.

농협목포유통센터는 또 7일부터 유통센터 대강당에서 매주 토·일요일 고객들을 대상으로 생활영어를 배울 수 있는 무료강좌를 개설할 예정이다.

김세익 사장은 "우리 농·축산물을 신뢰하고 애용해 주는 고객들에게 보답하는 뜻에서 영어체험 마케팅을 실시하게 됐다"며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곡성 옥과에 대규모 인삼재배단지

58ha 규모 조성 … 농가 소득원 기대

곡성 옥과지역에 대규모 인삼재배 단지가 조성된다.

곡성군은 옥과면의 지역 특성을 살려 우량인삼 생산기반 구축에 나섰다.

군은 올해 17농가 10ha에 미생물제 및 토양개량제, 유기물 등을 지원, 신규 인삼재배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곡성지역은 옥과를 중심으로 58ha의 인삼단지가 조성돼 있으며 올 가을부터 수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광주·전남지역은 적합한 토양과 기후조건을 갖추고 있는데다 각 시·군이 경쟁적으로 지원에 나서면서 인삼재배의 적지로 떠오르고 있다. 인삼은 판로걱정이 없는데다 높은 소득이 보장되는 등 벼 대체작물로 농민들이 선호하고 있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

직원 스트레스·갈등 해소 심리상담 프로그램 도입

광산구

광산구가 직원들의 스트레스 및 대인갈등 해소를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광산구는 이달부터 스트레스나 고민, 대인 갈등 등에 대한 심리상담프로그램인 임직원 지원프로그램(EPA : Employee Assiatance Program)을 도입했다. 구는 이를 위해 광주에 있는 모 심리 상담소와 협약을 마쳤으며 업무상 스트레스에서부터 자녀문제나 부부갈등을 비롯한 개인적 문제까지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광산=기원태기자 wtkee@

폐쇄된 나주역 역사 교육장으로

광주학생독립운동 진원지 기념관 조성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진원지였던 나주역이 역사 교육장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나주시는 호남선 복선화 공사에 따른 노선 조정으로 폐쇄된 죽림동 나주역 일대 2만8천여㎡에 광주학생독립 진원지 기념관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6일 착공, 올 연말 준공되며 65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2층 규모(842㎡)인 학생운동진원기념관은 당시 독립운동에 참가했던 학생들의 각종 유품과 사진 등이 전시되는 유물전시관을 비롯 학예연구실, 영상실, 세미나실 등이 들어선다.

또 나주농업보습학생과 나주보통학생들의 만세사건, 나주출신 학생운동 지도자 등을 주제로 한 전시관도 꾸며진다.

이와 함께 문화재로 지정된 나주역사(전남도 기념물 183호)도 당시 자료사진과 관계자의 증언을 토대로 옛 모습으로 복원되며 역사 주변 1만5천여㎡에는 야생화단지와 쉼터, 주차장 등 편의시설도 조성된다.

나주역은 1929년 10월 29일 나주에서 광주로 통학하던 조선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 간의 충돌을 계기로 다음달 전국적인 학생독립운동(11월 3일)으로 번졌던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나주역은 지난 2001년 7월 10일 호남선 복선화 공사에 따른 노선 조정으로 폐쇄됐다.

/나주=정칠현기자 chjung@

■ 새얼굴

"보훈가족 복지증진 최우선"

송 영 조 목포보훈지청장

"보훈대상자들의 복지증진과 민원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2일 취임한 송영조(55) 목포보훈지청장은 "보훈가족은 물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선진보훈행정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전북 김제 출신인 송지청장은 전주고를 졸업한 뒤 지난 1971년부터 보훈공직자로 근무, 광주지방보훈청 보훈·총무과장 등을 지냈다. 가족으로는 부인 정명주씨와 2남이 있다.

/목포=이상휴기자 lsh@